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과 증진 방안

---

도남희

1. 들어가며
2.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3.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4.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5. 기대효과



## 표차례

〈표 1〉 유아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3
〈표 2〉 신체활동과 식생활 여부	3
〈표 3〉 지역사회와의 안전	5
〈표 4〉 대인관계 대한 만족	6
〈표 5〉 유아의 행복감(부모 응답)	7
〈표 6〉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순위)	8
〈표 7〉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순위)	9
〈표 8〉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순위)	9
〈표 9〉 유아의 물질적 환경	11
〈표 10〉 유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11
〈표 11〉 유아의 또래와의 따돌림과 성인학대 여부	12
〈표 12〉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동네 안전	13
〈표 13〉 충분한 보/교육 서비스와 과도한 조기교육	14
〈표 14〉 유아의 부모나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	15
〈표 15〉 성인으로부터 존중 정도	15
〈표 16〉 유아 행복한 정도	16
〈표 17〉 정책의 유아 행복 증진에 적절성	17
〈표 18〉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부모 측면	18
〈표 19〉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기관 측면	19
〈표 20〉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19
〈표 21〉 취약 계층의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20

## 요약

- 생애초기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가정 및 교육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 행복감을 침해하고 있음.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행복한 편임 61.5%, 매우 행복함 36.0%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2.5%의 부모는 유아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부모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음.
- 교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아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로 나타났음.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대체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관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육이 필요하며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근로시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 및 패밀리데이 등의 실행이 요구됨.

## 1. 들어가며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고자 발표하였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음.
  - 한국아동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이며(72.5점/100점),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2위(GDP대비 0.8%)임.
  - 약 100만 명의 빈곤 아동과 약 3만 명의 가정해체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필요함.
-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행동과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



록 하며 이러한 경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유아기 행복감은 이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

□ 최근 핵가족화, 이혼 가족의 증가, 조기 영어교육 열풍과 사교육의 증가와 같은 가정 및 교육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행복감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교사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유아기의 행복감 관련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한여 주관적 웰빙과 가까운 의미임.

## 2.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 가.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수준

□ 응답한 학부모는 어머니가 94.1%, 아버지가 2.6%이며 조부모는 3.0%였음.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43.5%, 중소도시는 52.5%, 읍면 지역은 나타났다.

○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알아본 결과, 취업한 경우는 35.8%, 미취업인 경우는 62.1%였음.

○ 부모 소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260만원 이하인 경우는 58.5%, 261만원~350만원은 18.9%, 351~450만원은 14.1%, 451만원 이상인 경우는 8.2%인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응답자)가 생각하는 유아 스스로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약 3.3점이었으며 ‘좋아하는 편임’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66.6%, ‘매우 좋아함’이 30.7%, ‘좋아하지 않은 편임’이 2.5%로 나타났다.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감의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유아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은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계(수)	평균	t/F
전체	.2	2.5	66.6	30.7	100.0(1,000)	3.28	
성별							
남아	.2	2.5	66.4	30.9	51.2( 512)	3.28	.08
여아	.2	2.5	66.8	30.5	48.8( 488)	3.28	
지역규모							
대도시	.5	2.3	65.3	32.0	43.5( 435)	3.29	.30
중소도시	0.0	2.5	67.6	29.9	52.5( 525)	3.27	
읍면지역	0.0	5.0	67.5	27.5	4.0( 40)	3.23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	4.1	70.4	25.1	58.5( 585)	3.20 <sup>a</sup>	11.16 <sup>***</sup>
261~350만원	0.0	0.0	66.1	33.9	18.9( 189)	3.34 <sup>ab</sup>	
351~450만원	0.0	.7	56.7	42.6	14.1( 141)	3.42 <sup>b</sup>	
451만원이상	0.0	0.0	57.3	42.7	8.2( 82)	3.43 <sup>b</sup>	

\*\*\*  $p < .001$ .

□ 유아의 건강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신체활동과 식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 3~4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81.8% 정도로 나타났음.

〈표 2〉 신체활동과 식생활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신체활동놀이 횟수	1.4	16.8	34.4	47.4	100.0(1,000)
식생활					
세끼 식사 횟수	.5	3.7	18.0	77.8	100.0(1,000)
과일/야채 섭취 횟수	.5	15.8	41.1	42.6	100.0(1,000)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	13.0	69.3	14.6	3.1	100.0(1,000)

□ 유아의 식생활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횟수, 신선한 과일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정도 및 편식 정도를 조사하였음.

○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에 세끼 식사하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주 5일 이상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77.8%, 주 3~4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18.0%, 주 1~2일은 3.7%로 나타났음.

- 만 4~5세 유아들이 성장급등기임을 고려할 때, 주 3~4일과 주 1~2일이 21.7%나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 유아들의 일주일 기준 과일/야채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경우는 42.6%, 주 3~4일은 41.1%, 주 1~2일은 15.8%였음

- 주 3일 이상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는 83.7%정도였으며 전혀 안하는 경우는 0.5%로 나타났음.

○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3.1%, 주 3~4일은 14.6%, 주 1~2일은 69.3%, 전혀 안함은 13.0%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82.3% 정도의 유아가 일주일에 인스턴트 식품을 주1~2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지역의 안전, 기관의 안전, 자녀에 대한 해로운 영향의 유무,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였음.

○ 주양육자가 인지하는 안전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보육·교육기관이 평균 3.13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해 2.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여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음

-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60만원 이하의 경우 거주지역과 보·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451만원 이상은 나쁜 영향과 자녀를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지역 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서 거주지역이나 보육·교육기관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3〉 지역사회의 안전

단위: 점

구분	거주지역의 안전	보육·교육기관	나쁜 영향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
전체	2.93	3.13	2.23	2.43
성별				
남아	2.93	3.14	2.22	2.43
여아	2.93	3.12	2.25	2.44
<i>t/F</i>	.09	.53	-.66	-.25
지역규모				
대도시	2.81	3.08	2.27	2.37
중소도시	3.03	3.17	2.20	2.47
읍면지역	2.93	3.08	2.28	2.29
<i>t/F</i>	15.29***	3.97*	1.29	.16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86 <sup>a</sup>	3.07 <sup>a</sup>	2.31 <sup>b</sup>	2.48 <sup>b</sup>
261~350만원	2.94 <sup>ab</sup>	3.11 <sup>ab</sup>	2.25 <sup>b</sup>	2.50 <sup>b</sup>
351~450만원	3.09 <sup>b</sup>	3.27 <sup>bc</sup>	2.09 <sup>ab</sup>	2.32 <sup>ab</sup>
451만원이상	3.06 <sup>ab</sup>	3.32 <sup>c</sup>	1.95 <sup>a</sup>	2.18 <sup>a</sup>
<i>t/F</i>	6.27***	9.24***	7.86***	4.69**

주: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포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및 교사 등의 타인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버지에 대한 만족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0점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유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351~450만원인 경우 260만원 이하집단에 비해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음.
-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 지역규모에 따라 도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규모와 관련된 기타 변수가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짐.
-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71점으로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음.
- 교사나 주변 어른 등 타인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9점으로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으나, 부모 및 또래에 대한 만족감 점수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이는 유아는 대인관계에 있어 부모와 또래를 가장 가깝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4〉 대인관계 대한 만족

단위: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친구	타인(교사, 주변어른)
전체	3.60	3.76	3.71	3.39
성별				
남아	3.55	3.76	3.70	3.36
여아	3.65	3.76	3.73	3.43
<i>t/F</i>	-.29	-.77	-1.57	.31
지역규모				
대도시	3.64	3.78 <sup>a</sup>	3.73	3.41
중소도시	3.58	3.76 <sup>a</sup>	3.70	3.39
읍면지역	3.45	3.58 <sup>b</sup>	3.64	3.25
<i>t/F</i>	2.37	3.87*	1.05	1.35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54 <sup>a</sup>	3.75	3.68	3.33 <sup>a</sup>
261~350만원	5.59 <sup>ab</sup>	3.73	3.76	3.44 <sup>ab</sup>
351~450만원	3.74 <sup>b</sup>	3.79	3.77	3.52 <sup>b</sup>
451만원이상	3.72 <sup>ab</sup>	3.82	3.70	3.48 <sup>ab</sup>
<i>t/F</i>	5.49**	1.01	2.40	5.51**

주: X<sup>2</sup>검증 결과(어머니, 친구)는 '전혀 좋아하지 않음'을 제외한 값임.

\*  $p < .05$ , \*\*  $p < .01$ .

○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평균은 3.52점으로 가장 높고, 미취업모 3.44점, 취업모 3.30점 순이었으며 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260만원 이하 집단과 351~450만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행복한 편임 61.5%, 매우 행복함 36.0%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2.5%의 부모는 유아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음.
  - 모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모인 경우 유아의 행복 수준은 가장 높고 해당 없음 즉, 어머니가 없는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응답 분포에서도 어머니가 없는 집단에서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14.3%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음. 즉,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양육자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감은 어머니가 있는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표 5〉 유아의 행복감(부모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은 편임	행복한 편임	매우 행복함	계(수)	$X^2(df)$	평균	t/F
전체	.2	2.3	61.5	36.0	100.0(1,000)		3.33	
성별								
남아	.4	2.3	61.9	35.4	51.2( 512)	2.07(3)	3.32	-.66
여아	0.0	2.3	61.1	36.7	48.8( 488)			
지역규모								
대도시	.2	1.6	66.2	32.0	43.5( 435)	10.65(6)	3.30	1.69
중소도시	.2	3.0	57.1	39.6	52.5( 525)			
읍면지역	0.0	0.0	67.5	32.5	4.0( 40)			
부모소득								
200만원미만	.3	4.3	66.5	28.9	39.1( 391)	30.36(15)*	3.24	5.90***
200~299만원	0.0	1.9	61.1	37.0	21.6( 216)			
300~399만원	.5	1.0	58.6	39.8	19.1( 191)			
400~499만원	0.0	0.0	57.0	43.0	12.1( 121)			
500만원이상	0.0	0.0	52.6	47.4	7.8( 78)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부모가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기관(교사)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하는 점이 무엇인지 유아의 주양육자를 통해 조사하였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 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38.7%,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존중하기 18.7%, 그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칭찬하기 12.8%,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11.1%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표 6〉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순위)

구분								계(수)	X <sup>2</sup> (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8.7	12.8	7.4	11.1	18.7	7.8	3.5	100.0(1,000)	
성별									
남아	41.8	11.9	6.8	10.0	17.4	7.6	4.5	100.0( 512)	8.89(6)
여아	35.5	13.7	8.0	12.3	20.1	8.0	2.5	100.0( 488)	
지역규모									
대도시	36.1	14.5	9.7	9.9	18.2	8.3	3.4	100.0( 435)	23.46(12)*
중소도시	39.4	12.2	6.1	12.2	19.4	7.6	3.0	100.0( 525)	
읍면지역	57.5	2.5	0.0	10.0	15.0	5.0	10.0	100.0( 4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6.4	14.0	8.7	11.6	16.6	8.4	4.3	100.0( 585)	18.15(18)
261~350만원	42.3	10.1	6.3	10.6	22.2	6.9	1.6	100.0( 189)	
351~450만원	39.0	12.1	4.3	12.8	22.0	7.1	2.8	100.0( 141)	
451만원이상	46.3	12.2	6.1	6.1	19.5	6.1	3.7	100.0( 82)	

주: 1) ①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② 자녀에게 칭찬하기 ③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④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스킨십 등) ⑤ 자녀 존중하기(자녀에게 귀 기울이기 등) ⑥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⑦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2) \*  $p < .05$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4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9.1%, 다음은 충분한 신체 활동 제공이 16.5%로 나타났음. 그 외에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음.

〈표 7〉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50.0	16.6	19.2	6.1	5.6	1.5	1.0	100.0(996)	
성별									
남아	52.7	15.1	19.8	5.5	4.3	1.6	1.0	100.0(510)	7.06(7)
여아	47.1	18.1	18.5	6.8	7.0	1.4	1.0	100.0(486)	
지역규모									
대도시	50.1	19.1	18.6	6.4	4.1	.9	.7	100.0(435)	35.22(14)
중소도시	49.5	14.3	19.9	6.1	6.9	2.1	1.1	100.0(523)	
읍면지역	55.3	18.4	15.8	2.6	5.3	0.0	2.6	100.0( 3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8.7	15.8	19.3	7.2	6.4	1.2	1.4	100.0(581)	20.99
261~350만원	51.3	16.9	20.1	5.3	4.8	1.1	.5	100.0(189)	
351~450만원	47.5	23.4	16.3	3.5	5.7	2.8	.7	100.0(141)	
451만원이상	59.8	9.8	20.7	4.9	2.4	2.4	0.0	100.0( 82)	

주: 1) ①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②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③ 자유로운 활동(탐색)의 기회 제공 ④ 유아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⑤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⑥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⑦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2) \*  $p < .05$ , \*\*  $p < .01$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질문한 결과, 1순위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24.9%, 자녀양육을 위한 적 정 근로시간 준수 23.0%,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19.5%,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 14.5% 순의 의견이었으며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8.3% 의 의견이 있었음.

○ 이러한 항목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표 8〉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23.0	24.9	19.5	14.5	5.0	4.7	8.3	100.0(999)	
성별									
남아	24.8	23.2	19.7	12.7	4.3	5.7	9.6	100.0(512)	11.23(7)
여아	21.1	26.6	19.3	16.4	5.7	3.7	7.0	100.0(487)	



(표 8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23.0	25.5	20.2	13.6	5.1	5.3	7.4	100.0(435)	35.60(14)**
중소도시	23.4	25.0	17.9	15.4	4.8	4.0	9.5	100.0(525)	
읍면지역	17.5	17.5	32.5	12.5	7.5	7.5	2.5	100.0( 39)	
260만원이하	23.1	23.6	21.4	13.9	5.8	5.3	6.8	100.0(584)	
261~350만원	21.7	27.0	16.9	16.4	5.3	4.2	8.5	100.0(189)	
351~450만원	25.5	24.1	17.7	14.2	2.1	3.5	12.8	100.0(141)	
451만원이상	20.7	31.7	14.6	15.9	3.7	3.7	9.8	100.0( 82)	

주: ① ①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③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강화 ⑥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⑦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⑧ 기타  
 2) \*  $p < .05$ , \*\*  $p < .01$

### 3.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 일반인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교사 28.4%, 원장 및 원감 23.0%와 현장 전문가 48.6% 였음.
-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전공은 유아교육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동복지/사회복지 33.9%, 기타, 아동/아동가족 전공, 교육/심리 순이었음.
- 조사대상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계층지원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었음.

#### 가.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의 행복감 수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현장 전문가들에게 유아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이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러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3%,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7%로 나타났음. 물질적 환경을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95점이었음.
-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교사나 원장 및 원감은 유아의 물질적 환경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표 9〉 유아의 물질적 환경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5	20.2	60.6	17.7	100.0(941)	2.95
직업						
교사	1.5	6.7	62.2	29.6	(267)	3.20 <sup>a</sup>
원장 및 원감	.5	8.3	61.6	29.6	(216)	3.20 <sup>a</sup>
현장 전문가	2.0	33.6	59.2	5.2	(458)	2.68 <sup>b</sup>
$X^2(df)$		161.07(6)***			t/F	87.57(2)***

\*\*\*  $p < .001$ .

□ 유아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한 결과,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염려된다는 의견은 51.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8.4%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현장 전문가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음.
- 염려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47로서 평균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의 염려하는 정도가 더 높았음.

〈표 10〉 유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4.6	33.8	42.1	9.6	100.0(941)	2.47
직업						
식생활 건강						
교사	25.8	32.6	31.8	9.7	(267)	2.25 <sup>a</sup>
원장 및 원감	19.0	42.6	28.7	9.7	(216)	2.29 <sup>a</sup>
현장 전문가	5.9	30.3	54.4	9.4	(458)	2.67 <sup>b</sup>
$X^2(df)$		88.84(6)***			t/F	27.42(2)**
전체	4.5	32.1	42.7	20.7	100.0(941)	2.80
직업						
충분한 신체활동						
교사	3.0	12.7	42.7	41.6	(267)	3.23 <sup>a</sup>
원장 및 원감	2.8	20.4	50.0	26.9	(216)	3.01 <sup>b</sup>
현장 전문가	6.1	48.9	39.3	5.7	(458)	2.45 <sup>c</sup>
$X^2(df)$		200.13(6)***			t/F	106.68(2)***

\*\*  $p < .01$ , \*\*\*  $p < .001$



□ 충분한 신체 활동에 대한 정도를 확인한 결과,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 그렇지 않다는 정도는 48.4%였음.

○ 신체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80으로, 신체활동 정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더 신체활동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음.

□ 유아의 또래와 따돌림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런 경험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36.5%,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5로 또래와의 따돌림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20점으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는 교사나 원장 및 원감보다 유아가 또래와의 따돌림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었음.

〈표 11〉 유아의 또래와의 따돌림과 성인학대 여부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9.2	44.2	34.1	2.4	100.0(941)	2.20
직업						
또래 교사	34.8	43.4	20.6	1.1	(267)	1.88 <sup>a</sup>
따돌림 원장 및 원감	27.8	50.9	19.4	1.9	(216)	1.95 <sup>a</sup>
현장 전문가	6.1	41.5	48.9	3.5	(458)	2.50 <sup>b</sup>
$\chi^2(df)$		147.55(6)**			t/F	79.81(2)***
전체	21.9	49.4	27.1	1.6	100.0(941)	2.08
직업						
성인의 교사	36.0	47.9	14.6	1.5	(267)	1.82 <sup>a</sup>
학대 경험 원장 및 원감	33.8	47.7	16.2	2.3	(216)	1.87 <sup>a</sup>
현장 전문가	8.1	51.1	39.5	1.3	(458)	2.34 <sup>b</sup>
$\chi^2(df)$		130.40(6)***			t/F	29.56(2)***

□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28.7%는 그런 편이라고 하였고, 71.3%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의견은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 보다는 원장 및 원감이, 원장 및 원감보다는 교사가 그러한 경험은 적을 것으로 보았음.

- 평균 점수는 2.08로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들이 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2.1%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충분한 장소가 없다고 하였음
  - 평균 점수는 2.35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교사는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유아의 행복을 위한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36.7%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63.4%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인식은 차이가 나타나 교사보다는 현장 전문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동네 안전

단위: %, 점

구분	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0	52.1	31.0	6.9	100.0(941)	2.35
직업						
충분한 장소						
교사	4.9	42.7	39.0	13.5	(267)	2.61 <sup>a</sup>
원장 및 원감	8.3	47.7	36.1	7.9	(216)	2.44 <sup>b</sup>
현장 전문가	13.8	59.6	24.0	2.6	(453)	2.16 <sup>c</sup>
	$X^2(df)$		68.05(6) <sup>***</sup>		$t/F$	35.18(2) <sup>***</sup>
전체	14.8	48.6	32.1	4.6	100.0(941)	2.26
직업						
동네의 안전함						
교사	14.6	43.8	34.5	7.1	(267)	2.34
원장 및 원감	18.1	49.1	30.1	2.8	(216)	2.18
현장 전문가	13.3	51.1	31.7	3.9	(458)	2.26
	$X^2(df)$		10.57(6)		$t/F$	2.81(2)

- 유아가 충분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72.9%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7.1%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의견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교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평균 점수도 4점 만점에 2.87점으로 평균점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장전문가만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13〉 충분한 보/교육 서비스와 과도한 조기교육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2.0	25.1	57.1	15.8	100.0(941)	2.87
충분한 교육/보육 서비스						
직업						
교사	1.1	15.7	55.1	28.1	(267)	3.10 <sup>a</sup>
원장 및 원감	2.3	16.2	58.3	23.1	(216)	3.02 <sup>a</sup>
현장 전문가	2.4	34.7	57.6	5.2	(458)	2.66 <sup>b</sup>
$X^2(df)$		99.90(6)***			$t/F$	46.47(2)***
과도한 조기 교육						
직업						
교사	7.5	36.3	42.7	13.5	(267)	2.62 <sup>a</sup>
원장 및 원감	6.5	33.8	40.3	19.4	(216)	2.73 <sup>a</sup>
현장 전문가	1.1	24.0	55.0	19.9	(458)	2.94 <sup>b</sup>
$X^2(df)$		43.59(6)***			$t/F$	15.55(2)***

□ 과도한 조기교육을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66.1%는 유아들이 과도한 조기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는 교사와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점수도 2.80점으로 과도한 조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평균 점수 또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유아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2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7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점수도 2.11점이었음.

- 이러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의한 차이도 뚜렷이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 간의 차이를 나타냈음.

□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지도 조사한 결과, 유아들이 또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은 72.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7.7%였음.

-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4로서 또래와의 시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이러한 충분한 시간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했음.

〈표 14〉 유아의 부모나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3.0	64.7	20.3	2.0	100.0(941)	2.11	
부모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0.9	52.4	32.6	4.1	(267)	2.30 <sup>a</sup>
	원장 및 원감	18.1	63.4	17.1	1.4	(216)	2.02 <sup>b</sup>
	현장 전문가	11.8	72.5	14.6	1.1	(458)	2.05 <sup>c</sup>
	$\chi^2(df)$	52.66(6)***			t/F	16.80(2)***	
전체	3.0	24.7	58.1	14.2	100.0(941)	2.84	
또래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9	11.2	59.2	27.7	(267)	3.13 <sup>a</sup>
	원장 및 원감	2.3	12.5	64.4	20.8	(216)	3.04 <sup>a</sup>
	현장 전문가	3.9	38.2	54.6	3.3	(458)	2.57 <sup>b</sup>
	$\chi^2(df)$	151.17(6)***			t/F	76.22(2)***	

\*  $p < .05$ , \*\*  $p < .01$

□ 유아의 환경 중에서 ‘성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0.7%,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3%로 나타났음.

-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95로서 평균 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가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15〉 성인으로부터 존중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6	18.7	66.1	14.6	100.0(941)	2.95
성인으로부터 존중	직업					
	교사	0.0	6.7	62.5	30.7	(267)



(표 15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성인으로 부터 존중	원장 및 원감	.5	10.2	67.6	21.8	(216)	3.11 <sup>b</sup>
	현장 전문가	1.1	29.7	67.5	1.7	(458)	2.70 <sup>c</sup>
$X^2(df)$		-				t/F	95.63(2)***

□ 유아의 환경 중에서 ‘대체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로 나타났다.

- 유아의 행복감 정도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88이었음.
-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대체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도 확인할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0.2%,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9.8%로 나타났다.

-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79로서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16〉 유아 행복한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유아의 행복감 정도	전체	.7	20.8	67.7	10.7	100.0(941)	2.88
	직업						
	교사	.4	7.9	67.0	24.7	(267)	3.16 <sup>a</sup>
	원장 및 원감	0.0	11.1	75.0	13.9	(216)	3.03 <sup>b</sup>
	현장 전문가	1.3	33.0	64.6	1.1	(458)	2.66 <sup>c</sup>
$X^2(df)$		-				t/F	87.20(2)***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	전체	1.7	28.1	59.9	10.3	100.0(941)	2.79
	직업						
	교사	2.2	16.5	57.3	24.0	(267)	3.03 <sup>a</sup>
	원장 및 원감	.9	26.9	64.4	7.9	(216)	2.79 <sup>b</sup>

(표 16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	현장 전문가	1.7	35.4	59.4	3.5	(458)	2.65 <sup>c</sup>
	$\chi^2(df)$						$t/F$

□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정책이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1.4%,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8.7%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교사들이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음.
-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23이었으며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느끼는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가 더 높았음.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이 취약 계층의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4.9%,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5.2%로 나타났음.

- 취약계층 행복 증진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27점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음.

〈표 17〉 정책의 유아 행복 증진에 적절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1	58.6	30.0	1.4	100.0(941)	2.23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	직업						
	교사	8.6	52.1	36.3	3.0	(267)	2.34 <sup>a</sup>
	원장 및 원감	11.1	60.2	27.3	1.4	(216)	2.19 <sup>b</sup>
	현장 전문가	10.5	61.6	27.5	.4	(458)	2.18 <sup>b</sup>
$\chi^2(df)$						$t/F$	5.72(2) <sup>**</sup>



(표 17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0	55.2	33.2	1.7	100.0(941)	2.27
직업						
취약계층						
교사	9.4	50.2	36.3	4.1	(267)	2.35
행복 증진정도						
원장 및 원감	10.6	54.2	34.7	.5	(216)	2.25
현장 전문가	10.0	58.5	30.6	.9	(458)	2.22
$\chi^2(df)$		17.25(6)**			t/F	3.38(2)*

#### 나.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가 47.1%,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가 14.8%, ‘자녀 존중하기’가 14.5%.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가 12.6% 순의 의견이 있었음.
-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표 18〉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부모 측면

단위: %, 점

구분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자녀 존중하기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자녀에게 칭찬하기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계(수)
전체	47.1	14.8	14.5	12.6	5.4	5.2	.4	100.0(941)
직업								
교사	56.6	10.5	14.6	10.1	4.5	3.4	.4	(267)
원장 및 원감	47.7	19.9	9.7	8.3	4.6	8.8	.9	(216)
현장 전문가	41.3	14.8	16.6	16.2	6.3	4.6	.2	(453)
$\chi^2(df)$				39.91(12)***				

주: 기타 의 항목 내용은 없음.

\*\*\*  $p < .001$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47.4%로 가장 많았고,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가

18.4%,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4.1%,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가 7.0%의 의견이 있었음.

〈표 19〉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기관 측면

단위: %, 명

구분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기타	계(수)
전체	47.4	18.4	14.1	7.0	4.7	4.6	3.4	.4	100.0 (941)
직업									
교사	45.7	26.6	11.2	7.5	3.0	3.0	3.0	0.0	(267)
원장 및 원감	45.4	17.1	13.9	12.0	4.2	3.2	3.2	0.9	(216)
현장 전문가	49.3	14.2	15.9	4.4	5.9	6.1	3.7	0.4	(458)
$X^2(df)$	-								

주: 기타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연계하는 부모교육, 교사의 인성 교육 등의 의견이 있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문의한 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가 31.2%, '보육기관의 질 향상'이 19.0%,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14.8%. '아의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이 12.1%,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11.5% 순의 의견이었음.

〈표 20〉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 시간 준수	보육 교육 기관의 질 향상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아이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녀양육 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기타	계(수)
전체	31.2	19.0	14.8	12.1	11.5	7.2	3.7	.4	100.0 (941)
직업									
교사	32.6	18.4	17.2	10.1	9.0	9.4	3.0	.4	(267)
원장 및 원감	36.6	20.8	14.4	10.6	8.8	5.1	3.2	.5	(216)
현장 전문가	27.9	18.6	13.5	14.0	14.2	7.0	4.4	.4	(458)
$X^2(df)$	-								

주: 정부예산 확충,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확대 등의 의견이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취약계층의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30.6%,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18.1%,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18.1%,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11.5%,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10.4%로 순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8.2%,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4.9% 등이었다. 직업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21〉 취약 계층의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기타	계(수)
전체	30.6	18.1	15.9	11.5	10.4	8.2	4.9	.4	100.0 (941)
직업									
교사	26.6	15.4	17.6	16.9	11.6	5.2	6.7	0.0	(267)
원장 및 원감	38.4	15.3	14.4	13.4	5.6	10.2	2.8	0.0	(216)
현장 전문가	29.3	21.0	15.7	7.4	12.0	9.0	4.8	.8	(453)
$X^2(df)$	-								

주: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의 인식변화, 정부예산 확충, 교사의 인성 함양 등임.

\*  $p < .05$ , \*\*  $p < .01$ , \*\*\*  $p < .001$

#### 4.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아이를 위한 균형적 양육이 필요함.
  -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 대부분은 실제 수요자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육육과 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취업모를 위한 기관보육을 강조하고 무상보육으로 인해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까지 확대되어 왔음.
  - 유아기의 아이들은 가정,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정책이나 사회구조는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기관에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 지원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 유아들은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활동을 하였을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더 필요한 것도 부모와의 시간이었음.
  - 유아에게 부모는 행복의 근원이므로 자녀와의 질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위한 적정근로시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와 패밀리 데이 실시 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가 필수적임.
- 가구 특성에 따른 요구 파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행복감을 높임.
  - 유아의 행복감은 지역 규모,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가구의 특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제도 지원이나 양육 지원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낮은 심리적 웰빙 수준을 완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유아와 아동의 최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사회적으로 형성함.
  - 가정,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유아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 유아가 안전함을 걱정하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유아들에게 충분한 여가와 놀이 제공이 필요함.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중요함.
  - 유아들에게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놀이, 교제활동 등을 선택하도록 함.
  -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족들이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 문화공간과 예술 체험 하도록 함.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연계 강화로서 현존하는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이 연계되어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부사업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요구들은 민간사업이 다가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장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정부사업이나 민간사업의 전달체계와 서비스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개인 당 서비스 제공 인원이 많고 항상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음.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접하는 종사자들의 인력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향상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이의 행복감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필요함.
  -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보다 인지능력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우선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음.
  - 잃어버린 아동기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유아기의 행복감에 대한 기획 홍보와 이를 위한 부모 인식 전환과 교육 캠페인을 제공해야 함.

## 5. 기대효과

-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지원을 강화함.
- 국가 미래 주역으로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제시함.
- 유아기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축적 가능

## 참고문헌

### 국내문헌

도남희·배윤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